

여수시 계절근로자 ‘코리안 드림’ 활짝

2024년 市-필리핀 우바이시 MOU
이촌 일손 부족 해결...이탈률 '0%'
현지서 집 마련·병원비 충당 등 결실
최근 285명 선발...절반 이상 재고용



여수시는 최근 필리핀 우바이시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력 검증과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사진은 참가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여수시 제공>

“앞으로도 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연결한 여수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현지 노동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발판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사례가 현지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필리핀의 99㎡ (3평) 남짓 작은 집에서 다섯 식구와 함께 어렵게 살던 제씨(34·여)씨는 2024

년부터 여수 지역 양 알식장에서 계절근로자로 참여해 최근 49.58㎡ (약 15평) 규모의 새집을 마련하며 보다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됐다.

또한 세 딸과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내를 둔 마이리(33)씨 역시 여수에서 근로하며 병원비를 마련, 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가족의 큰 자랑거리가 됐다.

이 같은 성과는 여수시가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필리핀 우바이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만 25세에서 40세 사이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

과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388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관내 어촌 등지에서 일했으며, 철저한 현장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무단 이탈률 '제로(0%)'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근로 만족도로 인해 올해도 154명이 재고용됐다.

시는 근로 현장에 적합한 인재 선발과 현지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지난 6·11일 필리핀 우바이시를 방문해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 체력 검증과 심층 면접을 실시했으며, 지원자 384명 중 최종 285명을 선발했다.

시는 계절근로자들이 고용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역원 고용, 근로 여건 수시 점검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바다 건너온 근로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준 덕분에 지역 어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인력 공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 서부경찰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서구 관내 초등학교 16개교가 참여한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이끌기 위해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다.

발대식에서는 박여진 연합회장 등 신임 임원 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유공 회원 감사장 전달이 진행됐다.

녹색어머니회는 앞으로 경찰과 함께 관할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등 하폭길 교통지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매일 아침 등·하교길 교통안전에 위해 헌신해 온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노동청 ‘고용복지+센터 한마음 워크숍’ 성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북구(췌아)이와즈에서 2026년 상반기 광주고용복지+센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광주고용복지+센터와 광산고용복지+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광주시, 북구, 중앙내일센터, 여성세로일하기센터,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등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장년 특화고용센터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구인·구직 공동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중장년층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과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중장년 재취업 성공모델이 지역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장년 특화고용센터가 지역 취업 지원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전남도 공사·출연기관장協, 행정통합 상생협력 논의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기관장 협의회는 21일 기관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차 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상생협력과 ESG 경영 실천 등 지역 현안 해결,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전남개발공사)을 비롯, 남부권 광역관광 로컬 브랜드 육성 및 전남 블루웨이케이션 홍보 협력(전남관광재단),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전남도사회서비스원), 성평등 일터 챌린지 추진(전남여성가족재단) 등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재정 기자

특히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남·광주 통합에 대응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계사업 확대와 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장충모 협의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 출범을 위해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과 ESG 기반 지역 상생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무안농협 김민정씨 ‘보이스피싱 예방’ 경찰서장 감사장

무안농협은 “직원 김민정(36·여·사진 오른쪽 서 두번째)씨가 최근 남다른 눈썰미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부터 지역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 무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영접점을 방문한 B(82·여)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농협 측에 정예예탁금 계좌 중도 해지와 전액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고객의 예금을 급히 찾으려는 점을 수상히 여긴 창구 직원 김씨는 주변을 의식해 B씨에게 다가가 꾀속말로 조심스럽게 정황을 물었다.

이어 B씨가 사기범과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사실을 털어놓자, 침착하게 대처하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단 한 푼의 피해도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무안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포스코노조, K-노사문화콘서트 티켓 580매 후원

조록우산 전남지역본부는 21일 “포스코노동조합으로부터 ‘K-노사문화콘서트’ 티켓 580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K-노사문화콘서트는 포스코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문화행사로 22-23일 광양 전남드래곤즈 보조구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이찬원, 권은비, 프로미스나인, 에픽하이 등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해 지역 시민들과 축제의 장을 꾸밀 예정이다.

전달된 티켓은 광양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원돼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적 경험과 정서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호 포스코노조 광양지부장은 “아이들에



게 문화공연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새로운 꿈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호남대-광산경찰-광산구청 ‘세이프 패트롤’ 발대식

호남대학교는 21일 “전남 광산경찰서와 광산서 어울음에서 흥기·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으로 민·관·경·학 세이프 패트롤(안전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여성 1인가구와 소상공인 밀집지역 일대의 선제적 예방 활동과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대와 광산서는 오는 6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경찰행정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중국 유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 및 광산구청 직원들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대는 선운지구 목자



골목 주변과 원룸촌, 황룡천수공원 일대 등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반려동물산업학과 소속 반려견 3마리도 동행 순찰에 나선다.

이동우 학생처장은 “지역 기관들이 지역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만들어가는 데 뜻을 모았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순찰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선욱 기자

광주 무진주디자인연구소, 백미 62포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무진주디자인연구소가 신상식 대표의 취임을 기념해 백미 62포(387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동구 소재 출판인쇄업체인 무진주디자인연구소는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해당 백미는 (사)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상식 무진주디자인연구소 대표는 “취임을 기념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여수경찰, ‘안심 통학길’ 조성 캠페인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여자고등학교 등 관내 10개 학교 인근에서 민·관·학 합동으로 ‘안심 통학길’ 조성을 위한 특별치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범죄로 높아진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10주간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범죄 취약지구 내 CCTV와 방범등 등 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장원석 경찰서장은 “학생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중양파출소, 농번기교통사고예방홍보

담양경찰서 중양파출소는 21일 “농번기를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찰이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안전 수칙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및 농기계 적재함에 고위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야간과 새벽시간 대 가시성을 확보해 취약 시간 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양수근 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사고 없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